

# 정부, 피해 최소화 주력 방침... FTA 등 협상 국면 준비

기업에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 제공  
경제 전반 불필요한 우려·동요 차단  
전문가들 “무역전쟁, 끝이 아닌 시작”

우리 정부는 워싱턴발 관세 정책에 촉각을 곤두세워 왔다. 향후 대응책이 관건인데, 캐나다·멕시코·중국 등과 같이 미국에 대한 보복관세 카드를 꺼내 들거나 언급하는 수준은 못 된다. 총리실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일단 피해 최소화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3일(한국시간) 새벽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 대상국·세율수준 등을 발표하는 즉시 두 자릿수 관세 부과 등의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일단 각 기업에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 불필요한 우려·동요 등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지난달 상순 이후 미 관세 관련 통합상담창구인 ‘관세 대응 119’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신설해 수출기업 애로 해소에 나서고 있다. 또 멕시코와 캐나다, 미국, 중국 등 20개 무역관에 ‘관세 대응 헬프데스크’를 설치해 해외 진출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현장을 직접 찾아가 기업의 애로사항을 확인하고 해소해 주는 것이 우리 수출과 기업이 당면한 문제 해결에 가장 중요한 과제”라



2일 경기도 평택항 내 자동차 전용부두에 선적을 기다리는 수출용 차량이 세워져 있다.

/뉴시스

는 입장을 낸 바 있다. 그는 “중소·중견 수출기업이 애로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세대응 수출바우처도 조속히 도입하겠다”고 했다.

수출대상지 다변화가 더욱 절실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강경성 Kotra 사장은 “미국의 관세 정책이 연이어 발표되고 있어 수출 현장의 통상 정보와 새로운 시장 개척 수요가 커지고 있다”고 했다.

지난 1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피해 지원을 위해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며 “조간간 자동차 등 산업별 지원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범석 차관은 인천 주안·부평 국가산단 내 5개 수출기업과 면담하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시 ▲무역금융 ▲

수출바우처 추가 공급 ▲핵심품목의 공급망 안정 관련 대책 등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여·야 합의로 관세대응·재난지원 등을 골자로 한 추경안 편성에 착수한 상태다.

김 차관은 이 자리에서 “미국 정부의 철강·알루미늄, 자동차에 대한 관세조치에 이어 상호관세도 부과될 예정”이라며 “미국발 관세전쟁에 따른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 등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이 녹록치 않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통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기업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애로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쏟아진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시 철강,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등의 산업에서 수익성

저하되거나 가격 오름세로 판매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농후하다.

미 행정부는 해외기업을 상대로 자국 시장에 공장 등의 설비투자를 하라고 직간접적으로 종용하고 있다. 해외·제3국에서 만든 제품이 시장을 휩쓰는 상황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우리 기업은 선택을 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아니면 대체 시장을 눈을 돌려야 한다는 시각도 많다. 기존의 동남아를 비롯해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또는 유럽 생산기지 진출을 적극적으로 시도할 때라는 지적이다.

어쨌든 현재로서는 각국 내기업은 고율 관세 여파로 인한 수익성 악화에 직면해 있다. 문제는 대응에 한계가 분명 있고, 있더라도 선택지가 매우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의 미국의 관세 정책 관련 설문에서 기업들 절반 가까이 ‘동향 모니터링 중’(45.5%)이라고 응답했다. 또 ‘생산코스트 절감 등 자체 대응책 모색 중’이 29.0%에 이어 ‘대응 계획이 없다’라는 기업도 20.8%에 달했다. ‘현지 생산이나 시장 다각화 등을 모색 중’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고작 3.9%에 그쳤다.

해외 전문가들 다수는 상호관세 발표가 트럼프발 무역전쟁의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보고 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발표 전 협상의 여지는 없으나 발표 이후 각국과 협상할 여지가 있음을 시사해 왔다. 그는 지난달 28일 전용기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세 협상 문제에 대해 “우리가 무엇인가 얻을 수 있다면 나는 그것에 열려 있다”고 밝혔다. 발표 전 협상이 가능한지에 대해선 “아니다. 아마 그 후에”라고 했다.

한국은 미국의 무역적자국 8위권에 든다. 이에 큰 무역적자를 안기는 15% (미국의 전체 교역국 중 15%) 국가를 뜻하는 ‘더티 15’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국내외에서 나온다. 이 같은 상황하에, 상호관세 부과 이후 기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를 대체하거나 협정문을 대폭 수정하기 위한 양자 간 협상으로 국면이 전개될 수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 원화약세 지속... 환율 1500원 돌파 가능성

국가 리더십 부재... 리스크 대응 취약  
“3개월 환율 구간 1380원~1530원대”

원·달러 환율 상승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강도 높은 ‘상호 관세’ 정책을 통해 전 세계를 상대로 한 ‘관세 전쟁’을 본격화하는 가운데, 원화가 타 통화 대비 뚜렷한 약세를 지속하고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단기 환율이 달러당 1500원을 넘길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2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보다 5.3원(0.36%) 내린 달러당 1466.60원에 주간 거래(오후 3시30분 종가)를 마쳤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 전쟁’이 확산하는 가운데 원화 가치는 지난 2009년 외환위기 이후 최저 수준을 지속했다.

트럼프는 지난달부터 관세 압박을 본격화하고 있다. 캐나다·멕시코·중국에서 수입되는 물품 대다수에 대규모 관세를 부과했고, 철강·알루미늄 등 특정 품목에 대한 관세도 제정했다. 오는 2일(현지시간)에는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상호 관세’ 정책의 세부 내용을 발표하고 즉각 시행한다.

트럼프는 상호 관세 공표를 하루 앞두고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뉴욕타임스(NYT), 워싱턴포스트(WP) 등 현지 매체는 백악관이 모든 수입품에 최대 20%의 단일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 관세를 부과하는 상대국에 동등한 관세를 부여하는 방안, 앞선 두 방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향후 원화값 움직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 하나는 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달러화를 정리하고 있다.

/뉴시스

안의 절충안 등을 놓고 최종 검토에 돌입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고강도 관세 조치에 중국, 캐나다 등은 보복 조치에 돌입했고, 유럽 연합(EU)도 맞대응을 예고했다. 또한 EU는 미국 시장에서 밀려난 철강 제품이 유입되는 것을 막고자 세이프가드 조치(수입 쿼터)를 강화하는 등 보호무역주의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국내 총생산(GDP) 대비 수출 비중이 35%에 달하는 한국 경제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상호관세 도입 시 한국 경제에 타격이 예상되는 가운데, 원화 가치는 타 통화와 비교해 뚜렷한 약세를 지속하고 있다. 지난 3월 말 기준 달러 대비 원화 가치는 1월 말과 비교해 3.7% 상승했

고, 같은 기간 유로화 가치도 4.4% 상승했다. 영국 파운드화는 4.2%, 호주 달러는 1% 상승했다. 반면 원화 가치는 1.4%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500원을 넘길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미국의 관세 정책 및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라 환율이 급등할 가능성도 열려있다고 분석했다.

이주원 대신증권 이코노미스트는 “대내 정치적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의 관세 위협에 따른 국내 경기의 하방 리스크 부각이 불가피하다”라며 “대내외 불안 요인이 겹치면 원·달러 환율이 연고점을 상회할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향후 3개월 환율 구간으로 달러당 1380~1530원을 제시했다.

박상현 iM증권 전문위원은 “각종 대내외 악재가 산재해 있지만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라며 “상호관세 내용이 한국만에 유독 불리하지 않다면 상호관세로 인한 원·달러 환율의 추가 상승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원·환율의 추가 상승 재료는 국내적 요인이 될 수 있다”며 “국내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앞으로 더 장기화하면 국내 국제 신인도 하락과 정책 공백에 따른 내수 불안 확산 및 신용리스크 증폭 등이 원화 가치의 추가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안승진 기자 asj1231@

## 韓 기업, 올해 영업익 5% 이상 감소 전망

수출시장 다변화 등 체질개선 시급

교해도 1.31% 줄어들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 관세’로 관세전쟁의 싸움터를 넓히기로 하면서 올해 국내 기업들의 영업성적표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에 기업 체질 개선과 수출 시장 다변화 등 새로운 통상 환경을 위해 기업도 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코스피 상장사 193개사의 올해 예상 영업이익은 270조949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2월 말(286조9896억원)보다 5.59% 감소한 수치며, 지난 1월 전망치(274조5398억원)와 비

교해 더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미국발 관세전쟁에 국내 정치 불안까지 맞물리며 원화약세도 이어지고 있어 기업으로서 비용 부담은 커지고 경쟁력은 악화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을 0.9%로, 지난 전망 대비 0.6% 포인트나 낮췄다. 올해 성장(전년 동기 대비)에서 수출 기여도는 상·하반기 모두 0.3%포인트로, 내수(0.5%포인트, 1.9%포인트)보다도 낮다.

/원광희 기자 wkh@

## 탄핵정국 안갯속... 향후 협상도 난망

>> 1면 ‘韓, 車·반도체 조준...’서 계속

앞서 미국은 모든 수입 철강에 보편 관세 25%를 물린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무관세 적용으로 대미 철강수출국 5위권에 든 한국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 대상 관세 부과 이후 정치적 담판을 위한 양자·다자간 협상에 나설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그러나 비상계엄 후폭풍에 시달리는 한국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될 시 2분기 내

내 대선 일정이다. 탄핵소추안이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라도 윤 대통령 내란 혐의 등에 대한 형사재판은 계속된다.

정부는 일단 피해 최소화 조치에 나선 방침이다. 지난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상호관세가 발표되면 협상과 그 충격을 줄이기 위한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진행돼야 할 것”이라며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자동차 산업을 포함해 각 산업에서 긴급하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지원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